

현대 여자 속옷의 체계적 분류에 관한 연구

이연수·김선화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about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a Female's Contemporary Underwear

Lee, Youn Soo · Kim, Sun Hwa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on, Korea

ABSTRACT

An underwear originated from when a human lost his purity and recognized his situation. But, it could not be sure when underwear and an outer garment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a function. An underwear has been used for a decorative and mental function, as well as a practical one. Also, it is the most fundamental medium to understand a human and a period. However, many studies on outer garments not an underwear have been done till now. Therefore, this study was done to be arranged and analyzed materials scattered in order to gi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an underwear as a clothes. The data were based on the existing fashion pamphlets, fashion magazines and other material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emale's contemporary underwear was classified into Hosiery, Foundation and Lingerie. The Hosiery was again classified into chemise, combination, drawers and brief. The most typical hosiery was a chemise for a health and hygiene, and the drawers was adhered closely to a body. The Foundation which had a function to be well shaped was classified into Brassiere, Girdle, All in one, Body suit, Corset, Waist nipper and Garter belt. A typical contemporary foundation was a brassiere and a girdle. A brassiere had a role to support the breast up and A girdle compensate a hip area. The Lingerie which made body silhouette be vivid was classified into Slip, Panty, Wintum, Linge, Home lingerie, and so on. A slip, a panty and a linge were typical lingerie. A slip made an outer garment be well-formed.

Key words: females's underwear, hoisery, foundation, lingerie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인간은 복식을 통해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복식의 한 아이템으로서의 속옷은 인간의 피부 위에 직접적으로 착용됨으로써 인간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

서 가장 원초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유독 겉옷에만 관심이 치중되어 연구되어온 것은 눈에 보이는 겉옷의 가시적인 특징 때문일 것이다.

겉옷과 속옷이 언제 구분되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성의 속옷이 팬티와 브래지어로 대변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970년대 빨간 내의의 시대를 거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쁜 레

접수일: 2003년 9월 10일 채택일: 2003년 10월 30일
Corresponding Author: Kim, Sun Hwa, Tel: 061-750-3683
Fax: 061-750-3683 E-mail: shkim@sunchon.ac.kr

이스가 달린 란제리를 선호하는 여성이 급증하였고 90년대에 접어들어 패션 시장은 겉옷과 속옷의 구분이 희미해 질 정도로 속옷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품질과 디자인, 소재, 기능도 겉옷만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위생적이고 깨끗하면 된다는 예전의 속옷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좀 더 아름답고, 고급스럽고, 기능적인 속옷을 찾는 여성 소비자들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속옷을 그냥 안에 입는 옷이 아니라 겉옷과 더불어 대등하게 패션의 커다란 흐름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속옷의 기원과 변천을 알아보고 현대 여자 속옷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기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속옷은 겉옷에 가려져 있어 이에 대한 실물 자료도 부족하고, 겉옷에 비해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져, 속옷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국내·외 출판된 복식사 서적들과 연구 논문들을 토대로 각 속옷의 출현 과정과 기능, 변천 등에 대해 고찰·분석하고, 현대의 여자 속옷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국내 및 일본, 유럽 등의 속옷회사가 제공한 자료들과 팜플렛, 또한 현존하는 실물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속옷의 정의

두산동아 백과사전(1996)에서는 속옷을 underwear 혹은 underclothes라고도 하며 속옷에는 피부의 오염을 방지하고 보온의 구실을 하는 위생적인 속옷, 메리야스와, 겉옷의 모양을 정리하고 체형의 결점을 보정하는 실용적인 파운데이션 및 장식적 접한 란제리 등이 있다고 하였다.

메리야스는 스페인어인 메디아스(Medias)에서 유래된 말로 본래 양말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최근에 와서 위생적인 목적으로 착용하는 속옷을 일컫게 되었다. 파운데이션은 “토대, 기초”란 의미로 파운데이션 가먼트(Foundation garment)의 약

칭이며, 란제리는 아마포의 뜻을 가진 Linger라는 오래된 불어로부터 유래되었다. 과거의 란제리는 여성의 양장용 속옷을 지칭했으나 현재에는 넓은 범위로는 옷을 포함해서 속옷, 잠옷, 심지어 와이셔츠나 수영복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란제리를 속옷에 국한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2. 속옷의 기원과 변천

1) 메리야스

보건·위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리야스는 슈미즈, 콤비네이션, 드로오즈, 브리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슈미즈(chemise)는 어깨에서 늘어뜨려 동부(胸部)를 풍성하게 감싸는 허벅다리 길이의 여성용 속옷이다. 어원은 라틴어의 카미시(camisia: 아마제 셔츠의 뜻)이고, 12세기경 셔츠를 뜻하는 프랑스 어인 슈미즈로 바뀌었다. 슈미즈는 처음에는 린넨 옷감을 의미하였지만, 그 후 린넨으로 만든 속옷을 지칭하는 말로 되었다(정홍숙, 1985). 형태적으로 고대의 튜닉(tunic)으로부터 발달하여 스모크(Smock)로 발전된 뒤 슈미즈로 되었다(Fig. 1). 중세후기 내외로서 사용된 슈미즈는 얇은 麻, 絹 등으로 만들었고 목둘레, 소매둘레에 자수나 레이스로 장식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Fig. 1. Linnen Chemise (김기업. 1985. Gothic 시대의 남녀복식에 관한 연구)

접어들면서 점차 사치스럽게 되어 白絹에 자수를 놓아 귀부인이 착용하였다. 로코코시대의 방중한 생활과 선정주의는 속옷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치로 나타나 슈미즈의 목둘레와 소매부리, 단 등에 화려한 레이스나 프릴로 장식하였다(Willett & Cunnington, 1951).

근대의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살결에 직접 닿는 슈미즈는 白麻製가 많았으며 어깨에서 단까지 풍성한 綾形으로 단순하였다. 목은 사각이나 원형으로 가장자리에 레이스 장식이 달려 있었다(신상옥, 1996). 현대에 와서는 몸에 밀착되는 피트한 메리야스에 슈미즈의 발자취가 남아 있으며 린넨으로 된 슈미즈 위에 레이스 장식 등을 한 화려한 스타일의 슈미즈는 현대 란제리의 슬립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차하순, 1985).

1877년경에 속옷의 항목으로 받아들여진 콤비네이션(Fig. 2)은 슈미즈와 드로오즈를 합한 형식이다(정홍숙, 1985). 여름에는 깃을 많이 파고 소매가 짧으며 겨울에는 소매가 길게 되어진 편리한 것으로 사계절을 통해 애용되었다. 길이는 무릎 정도이며 앞이나 뒷 중앙을 띄우고 단추로 잠갔다. 천은 絹, 毛로 된 실용적인 것에서 綿, 綾絹에 레이스로 단 장식을 한 사치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S자형시대는 부드럽고 화려한 레이스 장식을 하여 착용하였다. 1890년대에는 레이스나 리본 등으로 장와 꼴셋을 이은 올인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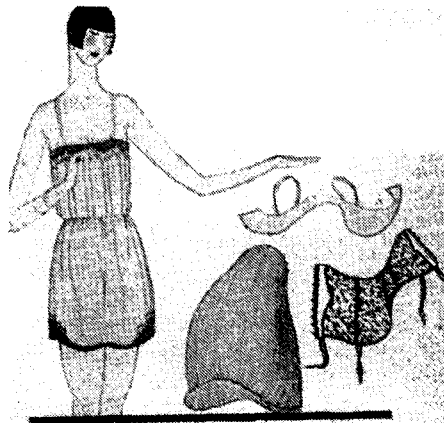


Fig. 2. Combination
(이의정 · 김소영, 2001. 언더웨어. p.41)

나 브라슬립 같은 데서 보여진다.

17C 후반경에 프랑스 여성에 의해 입혀지기 시작한 드로오즈(drawers, carconne)는 반바지 형식의 속바지(Fig. 3)이며 18C까지 여성들의 사용은 극히 소수였다. 프랑스에서는 왕정복고 시대에 일반화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9C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김주애, 1985). 근대 낭만주의 스타일 시대에 접어들어 승마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자 드로오즈가 크게 보급되었고 크리놀린 시대에도 낭만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승마와 스포츠가 성행함에 따라 속옷이나 바지의 중요성이 증대하였으며 생시몽주의자(St.Simonien)나 Bloomer 부인에 의해서도 여자의 바지착용이 제창되었기 때문에 크리놀린 밑에 드로오즈나 판타롱을 착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드로오즈는 크리놀린 유행이래 일반적으로 되었으며 1870년대까지는 밑이 트인 것이었으나 1870년 후반부터는 오늘날과 같이 밑이 막혀졌다(Willett & Cunnington, 1951).

오늘날 브리프(brief)로 언급되는 B.C 3000 년경의 슈메리아의 테라코타(terra cotta)상은 현재



Fig. 3. Lawn Drawers (이의정 · 김소영, 2001. 언더웨어. p.83)

Louver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브리프는 초기 원시 의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의로부터 유래되었으며 洋의 가족으로 만들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경기장에서 여성들이 착용한 운동복인 스트로피움(Strophium) 비키니형 브라와 브리프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운동복으로써 겉옷과 속옷의 기능을 함께 했던 것이 현재에서는 단지 속옷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2) 파운데이션

체형보정의 기능을 가진 파운데이션은 브래지어, 거들, 코르셋 등이 있다.

브래지어는 원래 콜셋의 상부가 유방을 눌러서 안정시키고 있던 것을 위로 연장시키는 작용을 더하고자 하는 데서 생겨났다(Payne, 1965). 콜셋에서 분리 '볼스타'였다. 19C 중엽에 바스트를 볼록하게 하고자 한데서 생겨난 것이 '바스트 임푸루버'였다. 레이스를 사용해서 장식한 바스트바디스(bust bodice)라는 개량형도 나타났는데 이것을 '바스트거들' (bust-girdle)로 칭했으며 어깨끈이 없었다(Willett & Cunnington, 1951). 1914년경에 부드럽고 짧은 브래지어가 개발되었는데 후에 '카레세 크로쉬' (Caresse Crosby)로써 알려졌다. 1916년에 어깨끈이 있는 브래지어가 나타났으며 1927년에는 두개의 둥근 캡으로 된 폭 좁은 브래지어인 '밴도우' (bandeau)가 나타났다. 1935년에 미국의 Warner Bros에서 최초로 꼭 맞는 캡을 고안하였고 1940년대까지 주로 영국에서만 캡크기가 네 종류로 나뉘어 애용되어졌다. 1938년에는 끈 없는 '브라' (Strapless bra)가 도입되어 50년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와이어브라 (Wire bra)도 이때에 나타났으며 최초로 심을 댄 브라(Padded bra)가 30년대 중반에 나타났다. 1969년에 소개된 '원더브라' (Wonder bra)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렸고 현재까지도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기에는 '리카라' (Lycra) 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색상과 무늬를 잘 조화시켜 날렵한 트리코(tricot)로써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1970년대의 전혀 심이 들어있지 않아 유방형태를 그대로 살린 '몰드드 브라' (moulded bra)가 오늘날까

지 많은 여성들에게 애호를 받고 있다.

거들은 몸통의 아래쪽을 둘러싼 밴드 모양의 물건을 말하였는데 과거에는 콜셋이라고 불렸으며 현대에 와서 소재와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거들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의상 속에 다른 속옷을 입지 않아 인체의 선이 그대로 드러난 그리이스彫像을 보면 린넨이나 새끼염소의 가족으로 된 밴드(band)로써 몸통의 허리 아래쪽 둘레를 감았는데 이것을 조나(Zone)라 하였다. 이것은 허리와 다리의 형태를 아름답게 조정하였으며 오늘날의 파운데이션(foundation)의 원형으로써 상당히 근대적인 감각으로 추정된다(정홍숙, 1985). 체형을 가볍게 조인 점에서는 현재의 거들과 같은 감각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거들은 20세기 초기부터 일반화되었고 고무천을 새틴천으로 써서 바느질하여 그 끝에 고리로서 金도금한 클립이 달려있다(남미향, 1999). 거들은 여성의 hip을 조여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이와 반대로 시대의 미적 가치를 좇아 여성의 hip을 과장하여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도구들이 있다. 16C에 처음 고안된 파덩계일은 그 후 300년간 여러 가지의 형태로 변형되어 hoop, crinoline, panier, pouf, bustle 등으로 불리워졌다. hoop는 고래, 강철 등의 버팀대며 crinoline은 스커트를 부풀게 하기 위해 입었던 말총 등으로 만든 딱딱한 페티코트나 또는 버팀살을 넣은 스커트이다. 18세기 여성의 실루엣을 특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후프(hoop)는 프랑스어로 '새를 가두는 바구니(basket)'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고래뼈, 철사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옆쪽으로 15피트 정도의 넓이의 불편한 구조였는데, 숙녀들은 문을 통과할 때 몸을 옆으로 돌려야만 다닐 수 있었다. pouf, bustle도 hoop, crinoline, panier와 마찬가지로 장식을 위해 부풀리거나 버팀살등을 넣어 만든 딱딱한 페티코트이다.

콜셋은 르네상스기부터 프랑스 대혁명까지 여성들 사이에 애용되었지만 귀족풍의 옷이 폐지된 다음부터는 신체를 속박하는 것이 없어졌다(백영자·유효경, 1991). 제 2차 세계대전 후 Christian Dior가 New look을 발표하여 새 물결을 일으켰는데 콜셋에서 잠시 해방되었던 여성들이 다시 콜셋을 착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C 초기에

는 콜셋이 콤비네이션이나 드로오즈 위에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콜셋은 직선적인 형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도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하고 몸통의 압박을 적게 하기 위해 딱딱한 것 대신 신축성 있는 천을 허리에 삽입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최영옥, 1985).

3) 란제리

속옷 중에서 가장 위에 입는 것으로 겹옷의 실루엣을 살려주는 란제리에는 슬립, 팬티 등이 있다.

이선재(1998)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는 기후가 따뜻하고 건조하여 개방적인 의상 형태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아열대성 기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체의 일부에 절치거나 헐렁하게 둘러 입는 '로잉스'라는 의상이 현재 속옷의 원형인 슬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5C 후반 스페인의 귀족의상에서 권위와富力를 과시하기 위하여 베르쥬가덴(Vertugardian)을 사용하였는데 베르쥬가덴은 속치마의 일종으로 스커트를 밑에서 받치기 위한 것으로 麻布에 등나무, 종려나무 줄기나 고대수염 등의 가는 단을 여러 단 수평으로 붙여 전체가 종형으로 퍼졌으며 布地로는 麻布이외에 얇은 모직, 타프타, 비로오드, 모카도등 비싼 견직물이 사용되었다(남미향, 1999). 이것이 제 1차 세계대전 후에 프린세스 페티코트로 되어지고, 보급되는 단계에서 princess slip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후에 일반화되면서 '슬립'으로 되었다.

복식사에서 팬티에 대한 기원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의 무화과 잎을 최초의 속옷으로 보았으나 그것은 현대 여자 속옷에서 인식되어지는 속옷의 개념이 아닌 몸에 걸친 유일한 옷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고대 로마 시대 여성들이 생리할 때 입었던 T자형 띠를 기능적인 속옷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III. 현대 여자 속옷의 체계적 분류

1. 메리야스

현대 여자 속옷의 메리야스를 크게 4가지 나

누어 보면 슈미즈, 콤비네이션, 블루머, 드로오즈, 브리프가 있다.

슈미즈는 19세기 중기까지는 장식적이고 화려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땀을 흡수하거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는 실용 본위의 속옷이 되었다. 피부에 직접 착용하는 일이 많으며, 본래는 소매가 달린 것도 있었으나 현재는 소매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슬립(slip)과는 본래 구별되는 것이었으나 속옷이 간략화 되는 경향에 따라 슈미즈가 생략되고, 슬립만으로 땀받이 구실까지 겸하기도 하였다.

복식에서 상의와 하의가 이어져서 하나로 만들어진 콤비네이션은 19세기말 슈미즈와 드로어즈가 이어진 것이 고안되고, 그 후 신사용 셔츠와 속바지 또는 팬츠, 여성용이나 아동용의 언더셔츠와 드로어즈 또는 브리프사가 이어진 것이 생겼는데, 소매가 달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모양이 단순한 것이 많았으나 1890년대에는 레이스나 리본 등으로 장식해서 만들었다. 현재는 여성용 브래지와와 콜셋을 이은 울 인원이나 브라슬립 같은 데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아래위가 연결되어 허리에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므로 허리선을 정리해야 하는 겹옷에 알맞다.

블루머(bloomers)는 1851년 Amelia Bolumer에 의해 런칭되었으며 계속 개선되고 현대화 되었다. 블루머는 소개된지 단지 6개월 동안만 지속되었으며 수십년 후 블루머는 밀폐된 드로어즈를 뜻하는 용어로 그 의미가 변했으며 현대에 와서는 타이트한 팬티위에 입는 품이 넉넉한 속옷으로 허리선과 가랑이 단에 고무줄을 넣어 입는다.

드로어즈(drawers)는 본래 서유럽의 남녀가 함께 입은 반바지식 속옷으로 남자용은 중세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16세기경의 것은 자수 등을 놓아 호화스러웠다. 여자용은 일반적으로 18세기 중기이후부터 착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승마용으로 착용하다가 점차 속바지로서 일반화되었다. 한국에서는 여자 전용의 무릎길이의 속바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여 팬티와 구별한다(Fig. 4). 오늘날 현대 여자 속옷에 보여지는 드로어즈는 신축성 리프조직의 원단을 사용한 신체에



Fig. 4. Drawers 1(Wacoal, 2002. imort brand collection)



Fig. 5. Drawers 2(Wacoal, 2002. imort brand collection)

밀착된 스타일의 보건 위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으며 감각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다(Fig. 5).

바짓가랑이가 없고 다리에 꼭 맞도록 디자인된 남녀 공통의 속옷을 브리프(brief)라고 하며 팬츠 또는 팬티라고도 한다. 브리프는 짧은, 간단한이란 뜻이다. 재료는 면메리야스, 나일론, 레이온, 견 등이 쓰이며, 특히 여성용은 자수, 레이스, 리본 등으로 장식된 것도 있다. 콜셋처럼 심(芯)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신체의 굴신(屈伸)이 자유롭고 압박감이 없다.

2. 파운데이션(foundation)

현대 여자 파운데이션에는 브래지어, 거들, 바디슈트, 콜셋, 웨이스트니퍼 등과 드레스의 실루엣을 보조하는 파니에가 있다(Table 1).

Table 1에서와 같이 현대의 여성 브래지어는 Round bra, Seamless bra, Wire bra, Strapless bra, Sports bra, long line bra, Maternity bra, Man bra, Front Hook bra, Mold bra로 나뉘어진다.

Round bra는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스타일로 Cup 둘레가 둥글게 처리되어 형태상 안정감을 주고 Bust를 보정시켜주는 브라로 bust전체를 전부 감싸주는 형태로 볼륨있는 사람과 체형이 호

트러진 사람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는 브라이다. Seamless bra는 특수소재를 넣어 만들어서 cup에 봉제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Bust에 자연미를 주어, Bust가 작거나 좌우 크기가 다른 가슴, 절벽가슴의 사람에게 좋다. Seamless bra중에 분리형 패드가 있는 것을 선택하여 작은 쪽 가슴에만 패드를 사용하고 다른 쪽은 분리하면, 크기의 차가 감쪽같이 감추어진다. Wire bra는 Cup 하단에 wire가 있어 bust를 안정시키고 시각적인 업(up) 효과가 있다. 가슴이 크고 겨드랑이로 퍼지고 처지기 쉬운 가슴인 경우 bust를 고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Strapless bra는 1/2cup 브라라고도 한다. Bust를 감싸주는 부분이 절반정도인 cup으로 어깨끈을 떼어낼수도 있기에 여름용 의상이나 어깨가 노출되는 이브닝드레스등에 적합하다. Sports bra는 레저활동이나 운동시에 착용하는 브라로 cup하단둘레에 Mash tape를 부착하여 심한 운동에도 Mash tape가 자연스럽게 늘어나 가슴형태를 안정시킨다. long line bra는 허리선까지 내려오는 브라로 가슴을 지탱하기 위한 디자인 브라로 윗배의 균살을 눌러주어 가슴부터 허리까지 균형 있게 해주는 브라이다. Maternity bra는 임신부용으로 Front 혹은 Cup에 특수처리

Table 1. The Types of Contemporary Female's Foundation

Bra	Round bra
	Seamless bra
	Wire Bra
	Strapless Bra
	Sports Bra
	Camisole bra=long line bra
	Maternity bra
	Mam Bra
	Front Hook Bra
	Mold bra
Girdle	Panty girdle
	Standard girdle
	High waist girdle
	Long line girdle
	Maternity girdle
Others	Corsellete
	All in one
	Waistnipper
	Body suit
	Garter belt

가 되어있다. 컵 부분만 간단히 떼고 붙일 수 있는 브라로 젓먹일 때 편리한 수유용 브라이다. **Mam bra**는 바스트가 풍만한 체형을 위해 만든 브라로 흔히 나이든 아주머니들에게 적격인 브라이다. **Bust** 전체를 충분히 감싸주는 컵으로 **Reforming**성이 뛰어난 브라이다. **Front Hook bra**는 Hook Eye가 앞에 있어 **Bra**를 앞으로 입고 벗기가 편리하며 뒤에 후크가 없어 뒷모습이 예쁘다. **Mold bra**는 전혀 심이 들어있지 않고 유방형태를 그대로 살린 것으로 cup에 이음선이 없고, 기계로 컵 자체를 찍어낸 브라로 착용감이 뛰어나다.

허리를 가늘고 날씬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웨이스트 니퍼 (Waist nipper)**는 1947년 극도로 가는 허리가 요구되었을 때 생겼다. 당시는 새틴 같은 천을 사용하여 끈으로 죄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고무나 신축성이 있는 감으로 만들어 전 다기보다는 편하게 체형을 다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무천, 스판덱스로 만든 것이나 후크로 여미도록 되어있으며 새로운 것으로는 기장을 길게 해서 가터벨트를 단 것, 브래지어, 웨이스트 니퍼, 거들 등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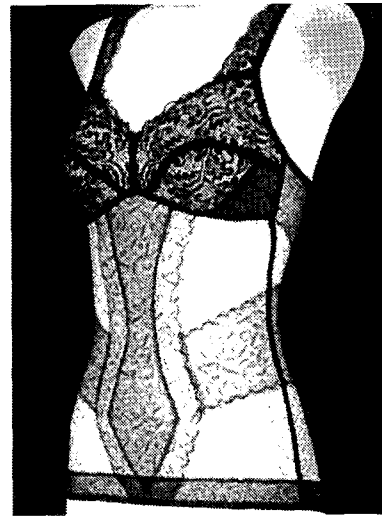


Fig. 6. Corset (Wacoal. 2002. F&W collection)

인원(all in one) 등이 많이 쓰인다. 웨이스트 니퍼는 파워네트와 스틸 본을 이용하여 허리의 지방을 강하게 지지함은 물론이고 척추에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한다.

원래는 갑옷의 하나인 **콜셋 (Corsellete)**은 끈이 달린 몸통을 감싸는 옷을 말한다. 허리선에서 엉덩이 선을 균형 잡히게 하는 것으로 아래 끝부분에 거들이 달렸다. 예전에는 2부분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앞뒤에서 끈으로 졸라매는 형식의 것이었으나, 소재의 개발이 진전된 현재는 하나로 간편화되었다(Fig. 6).

거들(Girdle)은 원래 “신체를 띠 형태로 둘러싼 물건”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으며, 과거에는 콜셋(Corset)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와서 소재와 기능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이른바 거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배, 엉덩이, 허벅다리 등을 감싸서 안정시키고, 배가 나오는 것을 눌러주며 엉덩이 부분도 치켜 올려준다. 거들은 원래 힘이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지금은 허리, 배, 힙, 허벅지 등의 문제 체형을 보완해주는 기능성 파운데이션으로 모양에 따라 쇼트, 스탠더드, 롱, 하이웨이스트 등과 보정 효과에 따라 하드와 소프트, 미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pantry girdle은 허리에서 힘까지의 체형을 보

정하며 가볍고 부담없이 착용 할 수 있는 Soft type 거들이다. Soft type은 주로 Two-way tricot를 사용하여 감촉이 부드럽고, 착용감이 경쾌하며 proportion이 좋은 사람 또는 거들을 처음 입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Standard girdle은 일반 거들 로베를 누르고 Hip-up 중심으로 체형을 보정하며 medium type 소재를 사용한 거들이다. Medium Type은 soft와 hard의 중간으로 일반적인 체형 보정에 사용하며 waist와 hip의 조절에 좋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High waist girdle은 일반거들 보다 5~7cm가량 허리 위치를 높여 넓은 Tape를 대어 허리를 강하게 조여주고, 실루엣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hard type의 거들이다. Long line girdle은 골반에서 대퇴부에 이어지는 앞부분에 Liple Line을 넣어 신체 굴곡에 알맞게 Fit한 Girdle이다. 이 거들은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이 입체 재단되어 있어 서포트한 효과가 뛰어나고 허벅지와 힘을 자연스럽게 나눠줌으로써 험입시키는 통거들이다. Maternity girdle은 복부위치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다트절개하여 배를 강하게 눌러주는 산전, 산후 몸매를 보호, 보정하는 기능을 하는 Girdle이다.

브래지어와 웨이스트 니퍼, 팬티가 하나로 이어진 것으로 전체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올 인원(All in one)은 원래 원피스 콜셋처럼 체형을 강하게 보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힙라인까지만 있는 세퍼레이트타입, 몸매 교정 기능이 가장 강한 프론트파스너 타입들이 있으며 최근에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실루엣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한 벌로 전신을 감싸기 때문에 가슴과 허리, 힙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사이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원피스형식으로 수영복 스타일의 속옷인 바디 슈트(Body suit)는 올 인원보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다. 파운데이션과 속옷의 두 가지 기능을 겸하고 있다. 브래지어 기능과 거들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으며 가슴, 허리, Hip 등 전체를 교정 및 보정할 수 있다.

3. 란제리(lingerie)

현대 여성 란제리는 나일론, 인조견, 실크 등으로 재료가 다양해졌고 특히 수를 놓거나 레이스를 다는 등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다. 란제리를 분류해 보면 Table 2에서와 같이 크게, 슬립, 원팀, 팬티, 란쥬, 홈란제리로 나누어진다.

슬립은 기초 속옷, 즉 파운데이션 다음, 드레스 입기 바로 전에 입는 양장용 여성속옷이다. '미끌어지다'라는 동사 슬립(slip)에서 전화된 명사이다. 드레스를 입고 벗기 쉽게 하며, 기초속옷만 입었을 때 불안한 실루엣을 바로잡고, 드레스를 입은 매무새를 정돈할 목적으로 입는다. 서양에서는 안감을 대지 않은 드레스에 맞게 만든 언더드레스(underdress)를 일컫는데, 슈미즈와 혼동하는 수가 있다. 슬립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full slip, half slip, camisole 등이 있다.

풀슬립은 원피스 형의 란제리로서 드레스에 받쳐 입음으로 여성다움과 기품을 더해주는 란제리로서 길이는 겹에 입는 드레스보다 5cm정도 짧게 입는 것이 정상이다. 슬립이 여성 속옷으로 독립된 것은 17세기경이고, 18세기에는 이 말이 콜셋 커버의 일종을 의미했다. 여자용 언더 스커트의 총칭으로 슬립의 하반부이며 겹옷의 실루엣을 도와주는 속치마인 하프슬립은 원래는 서양 여성복이 15세기 말에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결과, 그 하체의 즉 스커트에 대하여 붙여진 명칭인데 19세기 이후에는 부인이나 소녀의 속 스커트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소매도 간소하고 대개 1장으로 만들었으나, 점차로 장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장식으로 꾸며지게 되었으며, 19세기 말기에는 실크, 새틴 같은 고급 천이

Table 2. The Types of Lingerie

	full slip
slip	half slip=petticoat camisole=day wear
	wintum
	panty
	Standard Style(SATIN)
	Raglan style
Linge	Running Style
	Strap Style
	Fit Line Style
	home lingerie

즐거 사용되었다. 현재는 주로 합성섬유나 면직물이 쓰이고, 슬립의 대신이나 스커트의 실루엣을 다듬기 위하여 쓰인다. 일반적인 상·하 세트로 입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서 하의만 입을 수도 있다. 상체에 입는 소매가 달리지 않은 여성용 속옷 상·하 슬립의 상의를 캐미솔이라고 한다. 17세기에는 콜셋 커버라고도 하였다. 원래 처음에는 어깨에서 수평으로 끊기고 슬립처럼 끈을 달아 어깨에 걸쳐 입게 되었다.

겨울과 가을의 복합어로 만들어진 명칭의 원형은 상의는 란주로서 속옷의 기능을 살리고 하의는 슬립의 기능을 살린 속옷 겸용의 슬립이다. 소매는 칠부, 삼부, 어깨 등으로 점차 순수 속옷의 기능보다는 감각적이고 패션지향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속옷으로 입는”에서 탈피하여 가까운 외출 시에는 겹옷으로 입는 란제리의 기능을 갖출수 있고 실내에서도 입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홈 란제리는 아웃웨어 겸용 속옷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더 각광받고 있는 속옷이다.

팬티는 다른 속옷과 달리 위생적인 측면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장식으로 레이스를 달거나 자수를 놓아 우아하게 하는 경우는 란제리로 분류된다.

란쥬(Linge)는 여성 속옷(내의)를 말하는데, 단순한 속옷이 아닌 패션성, 기능성이 추구된 장식성이 강한 의류로서 계절 감각에 맞추어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으로 아웃웨어와 밀접한 교량역할 뿐 아니라 인간의 의복 착용 목적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아이템이다.

IV. 결론

복식의 역사는 인류 정신활동의 발자취를 살필 수 있는 문화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복식의 한 아이템으로서의 속옷은 인간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속옷을 그냥 안에 입는 옷이 아니라 겹옷과 더불어 대등하게 패션의 커다란 흐름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속옷의 기원과 변천을 알아보고 현대의 여자 속옷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기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대 여자 속옷은 크게 메리야스, 파운데이션, 란제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메리야스는 체온을 유지, 조절해 주며, 땀등의 분비물에 의해 겹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주로 보건 위생의 목적으로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이다. 메리야스를 분류해 보면 슈미즈, 콤비네이션, 블루머, 드로어즈로 나눌 수가 있다. 슈미즈는 땀을 흡수하거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는 실용적인 옷이며 콤비네이션은 슈미즈와 드로어즈를 합한 형식으로 아래 위가 연결되어 허리선을 정리해야 하는 겹옷에 알맞게 착용되어지고 있다. 블루머는 타이트한 팬티위에 입는 품이 넉넉한 속옷으로 허리선과 가랑이 단에 고무줄을 넣어 입으며 드로어즈는 보건 위생상의 기능이 있는 옷으로 신축성있는 원단을 이용하여 타이트하게 착용되어지고 있다.

두 번째, 파운데이션은 체형을 위한 목적으로 복장을 정돈하는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하며 몸의 결점을 보정하고 조형상 아름답게 정리하는 브래지어, 웨이스트니퍼, 콜셋, 거들, 울인원, 바디슈트, 등이 있다. 브래지어는 유방을 받쳐주고 보호하며 가슴의 모양을 교정해서 상의의 이상적인 실루엣을 조성하여 주며 웨이스트니퍼는 고무나 신축성 있는 감으로 만들어 예전의 전다는 개념의 웨이스트와는 다른 편하게 체형을 다듬는 데 중점을 두고 착용하고 있다. 거들은 배, 엉덩이, 허벅다리 등을 감싸서 안정시키고, 배가 나오는 것을 눌러주며 엉덩이 부분도 치켜 올려주는 화운데이션에서 브라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체형보정용 화운데이션이다. 콜셋은 허리끈이 달린 몸통을 감싸는 옷을 말한다. 허리선에서 엉덩이 선을 균형 잡히게 하는 것으로 아래 끝부분에 거들이 달렸다.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로 속박이 적은 것으로 개량되었다. 바디슈트는 울인원보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체형보정의 효과보다는 아름다움에 치중한 제품이다. 울인원은 원피스 콜셋처럼 체형을 강하게 보정하는 것으로 한벌로 전신을 감싸준다.

세 번째 란제리는 속옷 중에서 가장 위에 입는 것으로 겉옷과의 접촉 감을 좋게 하고 보디나온 실루엣을 살려주며 슬립, 원티, 팬티, 란주, 홈란제로 분류되어진다. 슬립은 폴슬립, 하프슬립, 캐미슬 슬립 등으로 나뉘어지고 홈란제리는 현대에 와서 속옷의 겉옷 화와 함께 대두된 새로운 아이템이다. 슬립은 겉옷의 실루엣을 바로잡고, 드레스를 입은 때무새를 정돈할 목적으로 입으며 하프슬립은 디자인에 따라 스커트 스타일, 바지스타일로 개발되어 필요에 따라 하의만 입는 슬립이다. 캐미슬은 상체에 입는 소매가 달리지 않은 여성용 내의로 바지 차림등 아웃웨어에 따라 상의만 입을 수 있어 편리하다. 원티는 상의는 란주로서 속옷의 기능을 살리어 보온이나 위생적인 기능을 살리고 하의는 슬립의 기능을 살린 속옷 겸용의 슬립이다. 팬티는 다른 속옷과 달리 위생적인 측면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날로 다양해지고 패션화 되어 가는 현대에 팬티는 기능성과 더불어 상징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패션화 되어 가는 속옷의 역사적 흐름이 비단 서양의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여자 속옷 또한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음으로 다음 속옷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여자 속옷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참다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더불어 현대 여자 속옷에 대한 연구에서도 각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연구나 미학적인 재해석을 다룬 연구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기업(1985). Gothic시대의 남녀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애(1985).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미향(1999). Underwear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산백과사전(1996). 서울:두산 동아 백과사전 연구소.
- 백영자·유효경(199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pp. 56-85.
- 신상옥(199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pp. 268-281.
- 이의정·김소영(2001). 언더웨어. 서울: 교학연구사, pp. 51-118.
- 이선재(1998). 의상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pp. 105-110.
- 정홍숙(1985).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p. 55-354.
- 차하순(1985). 西洋史總論. 서울: 탐구당, pp. 28-75.
- 최영옥(1985). Corset에 관한 고찰. 안동대 논문집 제 5 호.
- 표준국어대사전(1999). 서울: 두산동아.
- Payne, Blanche(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pp. 80-609.
- Willett, C. & Cinnington, P.(1951). The History of Underclothes. Loden: Michael joseph LTD, pp. 21-169.